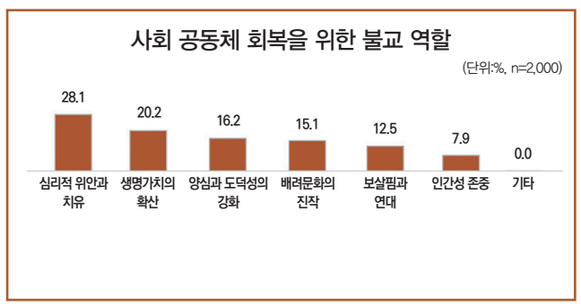
선명상, 치유 돌봄 영역 공공성 구현이 핵심

2025년 한국불교 인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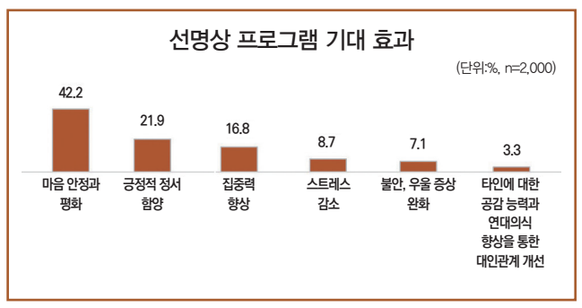
불교 기대 역할 1위 '위안과 치유'

'선명상' 프로그램 대중화가 관건

'마음치유 솔루션' 브랜딩으로 접근



한국 사회의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회복을 위해 불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은 '심리적 위안과 치유'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명가치의 확산'(20.2%)이 뒤를 이었다.



선명상 프로그램을 통한 기대 효과는 '마음 안정과 평화'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적 정서 함양'(21.9%), '집중력 향상'(16.8%)이 뒤를 이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연구소가 공개한 '2025년 한국불교 인식조사' 결과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역할이다.

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불교가 가장 우선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이 '심리적 위안과 치유'(28.1%)로 꼽혔다. 갈등과 불안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국민들은 불교가 개인의 고통을 보듬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치유자'로서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이어 '생명가치의 확산'(20.2%)과 '양심과 도덕성의 강화'(16.2%) 등도 주요 기대 역할로 꼽혔다.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돌보는 역할에 집중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조계종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명상 대중화' 정책과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앞서 조계종은 선명상을 특정 종교 수행에 국한하지 않고 현대인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마음 훈련이자 생활 수행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민 다수가 불교에 기대하는 '위안과 치유'의 기능을 선명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는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읽힌다.

보고서는 선명상에 대한 인식과 수용 가능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고 분석했다. 선명상 프로그램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2.2%가 '알고 있다'고 답해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 않았으나, 선명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경우 호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68.1%에 달해 높은 수용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 신자(78.1%)·고연령층·고학력층을 중심으로 인식이 비교적 높게 형성됐다.

특히 종교 여부와 관계없이 명상과 마음챙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마음 안정과 평화(42.2%), 긍정적 정서 함양(21.9%), 집중력 향상(16.8), 스트레스 감소(8.7%) 차원에서 선명상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불교가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공공재로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에 따라 선명상을 단순히 수행법이 아닌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해결하는 '마음 치유 솔루션'으로 브랜딩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선명상 대중화가 곧바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과제로 남는다. 조사에서는 불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가 부처님(22.6%), 사찰(19.8%), 스님(16.8%) 등 외형적으로 구분되는 1차적 속성에 치우쳐 나타났다. 반면 자비롭다(5.1%) 등의 질적 속성이나 명상(4.1%) 등 종교 활동을 떠올리는 응답자는 크게 적은 편이었다.

불교 이미지의 형성과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로 수행과 교리를 대중의 언어로 풀어내고 일상 속 실천으로 연결하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선명상 역시 일부 계층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박수호 중앙승가대 교수는 "이번 결과는 불교가 처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로 불교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높지만 그 신뢰가 사회적 영향력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한국불교의 역할이 분명해진 만큼 선명상을 비롯한 치유와 돌봄의 영역에서 불교의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연구소장 원철 스님은 이번 인식조사에 대해 "우리 불교가 어떻게 발전해야 하고 사회에 기여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한 연구 결과"라고 설명하며 "향후 다양한 주제로 종교가 사회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큐사인 회원들이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하경 스님의 지도 아래 톳 · 버섯 볶음잡채를 만들고 있다.

청년 성소수자들, "차별 없는 세상" 발원

큐사인 · 사노위, 1월 30일 조계사

'도란도반' 불교체험으로 진행

사찰음식 만들기도 "포용성 느껴"

"차별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 주세요."

"부모님 건강과 가족의 만사형통,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원만히 풀리길 바랍니다."

청년 성소수자들이 새해 소망을 담아 조계사 부처님 앞에 초와 향을 올렸다.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대표 파람 활동가) 회원들은 1월 30일 서울 조계사 일원에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도란도반'을 진행했다.

'도란도반'은 큐사인의 2026년 첫 월례모임으로, 새해를 맞아 불교문화를 체험하며 새해 소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회원 20여 명이 참여해 △연등 만들기 △사찰음식 체험 △초·향 공양 올리기 등 다양한 불교문화를 직접 경험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사노위)가 공동 주관해 눈길을 끌었다. 큐사인 측은 불교가 차별과 혐오보다 포용과 자비를 중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에 주목해 첫 월례모임으로 불교체험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노위를 통해 행사 협조를 요청했고, 사노위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이번 프로그램이 성사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파람 활동가는 "할머니가 불자여서 불교는 익숙했지만 불교문화를 직접 체험한 건 처음"이라며 "특히 불교계가 성소수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포용하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수덕사, 2기 선출가학교 …"나 찾는 열흘"

4월 1~10일, '열흘간의 출가살이'

온라인 등서 3월 20일까지 접수

'출가절벽' 대응책으로 전국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단기 출가학교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도신 스님)가 2기 선출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수덕사는 4월 1~19일 경내에서 '수덕사 제2기 단기 선출가학교-나를 찾는 열흘 간의 출가'를 실시한다.

'단기 선출가학교'는 스님이 되기 위해 처음 출가했을 때 겪는 행자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교구본사가 주관하는 만큼, 단순 사찰체험이 아닌 실질적인 교육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수덕사는 열흘 간의 출가살이에서 대중생활이 가능한 17~65세 남녀 각 10명, 총 20명을 선발한다. 3월 20일까지 수덕사 홈페이지(www.sudeoksa.com)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79)과 이메일(sudeaksa@hanmail.net)로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과 건강검진서도 동봉해야 한다.

1차 서류 합격자는 3월 23일 발표하며 전화 및 화상으로 2차 면접 후 최종합격자는 3월 26일 발표한다. 심사 기준은 심신이 건강하고 출가학교 참여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다. 참가비는 40만원이며 고등학생·대학생은 전액 무료. 041-330-7788

임은호 기자

120돌 동국대, 인도 문화교류·학술탐방 원만회향

1월 20~30일 9박 11일 간

성지 순례, 교육기관 교류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건학 120주년을 기념하는 첫 공식 행보로 불교의 발상지 인도에서 '인도 문화교류 활동 및 학술탐방'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회향했다. 탐방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과 윤재웅 동국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서울·WISE캠퍼스 불교동아리 대표 학생 등 총 52명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1월 21일 인도 현지에서 입재식을 시작으로 보드가야, 라즈기르,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룸비니, 쉬라바스타에 이르기까지 부처님의 주요 성지를 순례했다.

학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삼아, 학생으로서 인성의 완성은 물론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단순 순례를 넘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현지 교육기관과의 활발한 교류도 진행됐다. 엄어와와 보광초등학교, 수자타아카데미를 방문해 한글교육과 전통놀이 체험, 체육활동을 진행했으며 카사피아, 다르파리 고등학교에서는 K-푸드체험 및 K팝 공연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했다. 또한 나란다대학과 가우땀 대학에서는 동국대 건학 120주년 홍보 및 글로벌 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쿠시나가르 열반당에서 동국대 방문단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한 영축산에서 방문단은 일출과 함께 고요한 명상에 들었으며 이 자리에서 돈관 스님은 소참 법문을 설했다. 돈관 스님은 "이 순간을 잊지 말고 어떤 곳에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어느 곳에 머무르더라도 '나는 주인공이다'를 잊지 말아라"고 설했다.

윤재웅 총장은 회향사에서 "학생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임을 깨닫고, 귀국 후에도 이웃을 위해 소리 없이 헌신하는 자랑스러운 동국인이 되어 달라"며 한국 불교와 우리 사회의 미래를 향한 학생들의 주체적인 역할을 거듭 당부했다.

회향식은 방문단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회향 발원문 낭독으로 마무리됐다. 신중일 기자

"제대로 아는 불교, 올바르게 아는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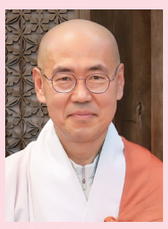
2026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기본반 신입생 모집

입학일 3월 8일 (일)

요 일	구 분	시 간	과 목	장 소
목요일	주간	오전10시 ~12시	사찰예절 기초교리 부처님 생애, 보현행원 반야심경, 천수경(다라니) 초발심자경문 다양한 특강들	선문화관 대강당
	야간	저녁7시 ~9시		양 정 교육관

○ 교육국장 스님이 초중고 및 고3 아이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축원을 해드립니다.


각전스님 (범어사 교육국장)


명인스님 (前 고운사 교무국장)


도명스님 (범어사 성보박물관 부관장)


일민 스님 (백련사 부다가야선원 선원장)

38년 전통의 신도전문교육기관

2026년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경전반 수강생 모집

시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오전10시 (선문화관)	금강경오가해 (각전스님)	능엄경 (원창스님)	원각경 (지원스님)	불교대학 기본과정(주)	법화경 (무애스님)
오후2시 (선문화관)	53 민화 (서연스님)	염불선 (정목스님)	중국 선문화 (법지스님)		
		육조단경 (도산스님)			
		민화 (서연스님)			
저녁7시 (양정관)	금강경오가해 (각전스님)	육조단경 (도산스님)	원각경 (지원스님)	불교대학 기본과정(야)	법화경 (무애스님)

○ 금정불교대학은 전통 강맥 및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과정에 있는 강사스님들이 강의합니다.

<주간반 선문화대강당> 부산 금정구 상마1길 20, 범어사선문화교육관

<야간반 양정교육관>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양정동) 불교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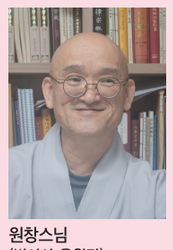
이메일 beomeosa1@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beomeo.kr

- 셔틀버스 운행 범어사역 3번 출구 <버스 운행 시간 : 오전 9시 10분, 30분, 50분 운행>
- 대중교통 범어사 입구에서 90번 버스 이용 상마마을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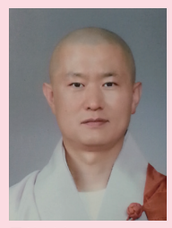

각전스님 (범어사 교육국장)


법지스님(중국선문화) (조계종 교육아사리)


무애스님(법화경)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창스님 (범어사 율원장)


정목스님 (양산 정토원 주지)


도산스님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지원스님 (범어사 승가대학 강사)


서연스님 (범어사 복지국장)

Ch 범어사금정불교대학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입학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 051)866-7277